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속도’ 낸다

1조8천억 규모·17개 세부사업 조기 집행
RE100 국가산단 유치 등 신규사업 추가

함평군이 전남도와 손잡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도약을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이상익 함평군수가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의 조기 집행과 추가 정책사업 유치 등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지사, 이상익 군수, 도·군 관계자, 오민수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의지를 다졌다.

함평군과 전남도가 공동 추진하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은 지난 2023년 9월5일 공동 발표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9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에 대한 협조와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 <함평군 제공>

된 전략 사업으로, 총 1조8천409억원 규모에 이르는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계획 반영이 필요한 광역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203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함평군과 전남도는 기존 사업 논의 외에도 ▲RE100 국가산업단지 100만 평 조성 ▲미래 융복

합형 첨단신도시 68만 평 조성 ▲데이터센터 직접화 단지 조성(40MW 규모, 5개 운영사 유치) 등 신규사업 유치를 추가 합의했다.

국도 및 도로 인프라 개선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함평군은 나산면과 대동면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12km구간의 2차선 선형 개선 공사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함평을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협안 사업을 설명하며 전남도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측은 한빛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원전 발전 용량 1kW당 지방세를 기존 1원에서 2원으로, 원전세를 0.25원에서 0.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 반경을 현행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행정과 협력을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함평군과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익 군수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RE100 국가산단, 첨단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함평군수가 제안한 RE100 국가산단 유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함평군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하겠다”며 “함평군이 그려 나가는 미래 비전사업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강진, 레드망고 스마트팜 조성사업 ‘순항’

240억 투입·대구면 사당리...건축허가
숙박·체험 공간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도

분홍나루로 유명한 강진군 대구면 고바우공원 인근에서 강진바다의 윤슬과 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정인이엔지가 민간 투자로 약 240억여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관광농원 레드망고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지난 4월 관광농원사업 승인에 더해 6월 건축허가승인까지 이어지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원 약 8천300㎡ 부지에 조성되는 레드망고 스마트팜은 숙박, 체험, 반려동물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되며 미래형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갑도>



개발 콘셉트는 ▲자연친화형 숙소 ▲웰니스 중심 복합시설 ▲디지털도마뱀족을 위한 위게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실내 스마트팜 체험장에서는 물고기와 채소가 함께 자라는 친환경 수경재배 시스템이 운영되며, 야외에는 애플망고, 체리, 단감 등 과수 체험 농장과 클럽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에는 ICT 기반 팻케어 시스템이 도입되며, 팻 전용 욕조·미용 공간·놀이공간 등도 함께 마련된다. 실내 스포츠센터, 라운지형 카페와 오션뷰 레스토랑 등도 조성돼 체류형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예정이다.

관광농원 앞으로 강진만이 펼쳐져 있어 ‘오션뷰 관광’이라는 프리미엄 자산을 갖췄다. 이 같은 입지적 강점은 ‘힐링·웰니스 관광 수요’ 및 ‘팻팍족(반려동물 가족화 트렌드)’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정인이엔지는 부동산개발업, 건축설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 외에도 여수 디오스타타워, 강릉 안데르센타운 등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이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 ‘1기 청년명예부군수’에 조아라 대표 위촉

정책 아이디어·소통 역량 높은 평가

영광군 ‘제1기 청년명예부군수’로 조아라 청년공동체 명하어로즈 대표가 위촉됐다.

12일 영광군은 지난 9일 제1기 청년명예부군수 위촉식(사진)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 중심의 군정 참여 시대를 열었다.

청년명예부군수제는 민선 8기 장세일 영광군수 핵심공약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광군은 만 19~45세 이하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오디션 형식의 발표와 심층면접 등 심사를 거쳐 청년명예부군수 1명과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11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명예부군수로 위촉된 청년공동체 ‘명하

어로즈’ 조아라 대표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와 뛰어난 소통 역량, 적극적인 참여 의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아라 청년명예부군수는 앞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1년 동안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청취 및 공식행사 참석 ▲정기회의 개최 ▲청년 의견수렴 및 SNS 홍보 활동 ▲청년 정책 제안 및 진단·평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장세일 군수는 “청년명예부군수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정책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완전 해독

유전 다양성 매우 낮아...보전 전략 수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12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 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종(CR)’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영광 육산도(무인도)에

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7천만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양 기관 연구진이 해독된 유전체 서열을 바탕으로 국내 개체군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뿔제비갈매기의 염기서열은 1만개 중에서 약 5개만 차이가 있어 유전 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자이언

트판다(1만개 중 약 12개 차이)나 두루미(1만개 중 17개 차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집단의 개체수가 충분치 않고 근친끼리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염기서열 다양성이란 개체 간 유전자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값이 낮을수록 유전 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뿔제비갈매기의 고품질 유전체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복원 및 보전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 바다고리풀 활용 축산 메탄 저감 ‘박차’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해조류 ‘바다고리풀’을 활용해 축산 분야 메탄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섰다.

완도군은 “최근 해양 블루테크 스타트업 AT4US Korea 및 글로벌 바다고리풀 연구 기업 Greener Grazing LLC와 토종 바다고리풀(Asparagopsis taxiformis)을 활용한 양식 산업 발전과 축산 메탄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바다고리풀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정책 연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AT4US Korea는 Greener Grazing LLC와 함께 국내 최초 바다고리풀 전용 연구소·종묘장 건립과 토종 바다고리풀 우량 종자 개발 연구, 해상 양식 실증 등 현장 중심 실무를 주도해 국내 바다고리풀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우철(가운데) 완도군수가 최근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AT4US Korea 및 Greener Grazing LLC와 토종 바다고리풀을 활용한 양식 산업 발전과 축산 메탄 저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바다고리풀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축산 메탄 저감 해조류로 주목받아 왔지만, 현재까지 해상 양식 상용화에 대한 성과가 없는 만큼 완도군의 도전에 국내·외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 중인 완도군

을 중심으로 메탄 저감 해조류 바다고리풀 상용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메탄 배출의 약 15%가 가축에서 발생하며, 바다고리풀은 가축 사료에 0.2%만 포함해도 메탄을 최대 98%까지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 모내기 후 저온성 벼 해충 조기 방제 당부

벼 물바구미·잎벌레 등 증가 예상

나주시는 12일 “관내 일반벼 재배단지에 이상 기후로 인한 저온성 해충 발생이 우려돼 적기 방제 및 예찰활동을 농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된 이후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일교차로 인해 저온성 해충인 벼 물바구미와 벼 잎벌레의 발생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벼 저온성 해충은 기온이 낮은 경우 산란율 및 생존율이 높아져 모의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며 특히 잎굴파리의 경우 유충 기간이 짧아

적기방제를 하지 못한 경우 본 답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내기 직후 어린 벼를 가해하는 벼 물바구미는 잎을 갉아 먹거나 줄기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며 피해가 심할 경우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춘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온성 벼 해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 방제가 중요하며 논에서 발생 여부를 확인해 초기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예찰 활동 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남군,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착수

산이면 간척 내 1천㎡규모...3년간 진행

해남군이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의 실증연구에 착수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산이면 간척 내 벼 재배지 3천㎡ 부지에 1천㎡ 면적의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모내기 작업을 마쳤다.

<사진>

이번 실증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하계작목인 벼를 시작으로 마늘과 양배추 등 다양한 작목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진행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